

그리스도인의 기준

성경말씀: 행11:19-26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등, 유대인, 이방인

AD 30년경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 11년이 지난 시점에 이방인들의 도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무리가 태동되었다. 그전에는 제자, 나사렛 종파에 속한 자들,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단순히 인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요, 주님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

행1:8,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

행7장의 스테반 사건으로 인해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이들이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짐 이때까지 100% 유대인들, 50% 유대인들(사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3년쯤 지난 뒤 행 10장에서 이방인으로 처음 고넬료가 구원을 받음

행11장에서 유대인들의 의심, 베드로 비방 및 책망, 베드로의 설명

결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행11:18).

19절: 유대인들이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함

20-21절: 그러다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 선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옴, 안디옥은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동서 무역의 무역의 교차로

22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매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냄

23절: 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함

24절: 그는 선한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짐

25-26절: 사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침

26절: 그 결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름

이유: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외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누룩, 빛,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부 사람들이 자동으로 알아야 한다. 언행을 통해

과거에는 유대인, 그리스인(이방인)으로 나뉘었는데 지금 이들은 더 이상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골 3:9-11).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통일된 사람들이다. 외부 사람들이 봐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살아난 사람

목사나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

“저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자매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매료시킨 것: 그리스도의 뛰어남,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거저 얻는 하나님의 은혜

현 시대 한국의 기독교에는 교인은 많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입교, 세례, 집사, 권사, 장로의 순, 그래서 WCC 등이 나옴

다시 말해 한국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없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상의 기준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

이 교회는 침례교회이다.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침례를 주므로 침례교회이다.

초기에는 침례성도(Baptists)라 불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희석되다 보니 - 유아 세례 등으로 -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침례성도라고 부른다. 이것 역시 다른 사람들이 붙여 준 이름, 혹은 성경 신자(Bible believer)라고 부른다.

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가? 성경 신자가 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와 있는가?
그냥 교회가 편해서 나와 있는가?

성경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Baptists)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 교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다. 또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처음부터 독립/자유 교회는 크리스천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으며 교회나 공회나 신조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같은 믿음은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퇴하지 않았고 이들의 후예로서 우리도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임을 믿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독립/자유 지역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없으며 천주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 추기경, 감독, 총회장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관할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믿는다. 각 지역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최종권위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2:5-9)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다. 이것은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며 구약 시대에 존재하던 육적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천주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 제사장(사제, priest)을 두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믿으며 또한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며 성도를 평신도라 지칭하여 의도적으로 계급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같은 걸치레 의식주의를 배격한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요, 예수님의 신약교회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더불어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이다.

4. 교회의 두 가지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할 두 개의 규례임을 믿었다. 우리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온 몸을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만 함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유아세례가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또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규례로 믿고 지키며 천주교회의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가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믿는다. 천주교회에서는 화체설에 근거하여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Sacrament)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것을 '성만찬'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 관행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 부른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만 함을 믿는다. 이 외에 우리는 세족식 같은 것을 신약교회의 규례로 믿지 않는다.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히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중세 이슬람교도나 천주교도 그리고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처럼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믿는다. 반면에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회계 보고 할 줄을 믿는다(롬14:10-12; 히9:27).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었다. 중세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유아세례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퇴출시켰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독립/자유/자치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반드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으며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 우리는 독립/자유 지역교회가 결코 천주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제가 아니며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님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임을 믿는다(히2:11).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없음을 믿었다. 중세 암흑시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독재 교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 교인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에 항거하여 피를 흘렸고 그 결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에도 이것이 파급되어 현대 시민들이 이런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

0.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가?
 1. 성경 신자 그리스도인을 생산해 내는 교회
 2. 새로운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교회
 3.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